

2012년 Christians in Political Science 주최 학술 대회를 다녀와서

◎ 신진동(미 시바큐스 대학 정치학 박사 과정 재학)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보스턴 근교 고든 대학 (Gordon College)에서 열린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산하 기독교 정치학자들의 모임인 <Christians in Political Science> (이하 CPS)의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학을 공부해오면서 늘 나의 신앙이 나의 학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고민해 오던 내게, 기독교 정치학자들이 모여 신앙과 학문의 통섭을 논하는 장이 열린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1991년 미국내 소수의 기독교정치학자들에게 의해 시작된 CPS는 회원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 현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도우며 회원들 간의 교제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권력과 정의: 정치 질서에 대한 관점들 (Power and Justice— Perspectives on Political Order)>이었다. 첫날 고든 대학 학부생들의 논문 발표에 이어, 국제 군사 문제와 미국 외교정책 진문기이며 현재 듀크 대학 (Duke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인 피터 피버 (Peter Feaver)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학술대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예년과는 달리 이번 대회에는 모두 다섯 번의 기조 강연이 마련되었는데, 모두 대중에게 개방되어 CPS 회원뿐 아니라 기독교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워크샵이 열렸는데, 그 주제들은 미국 정치, 비교 정치, 국제 정치, 정치 사상, 그리고 정치 교육과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정치학의 세부 분야를 모두 아우를 정도로 매우 다양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소속되어 논문을 발표한 <종교의 자유> 패널로부터, <어거스틴과 복음주의 정치사상>, <종교와 미국 대통령제>, <세속 대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개발도상국의 정치>, <정의에 대해 성경적으로 사교하기>, <분쟁해결에 대한 신앙적 접근> 등의 주제 아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길 교수는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그의 기조 강연에서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변호하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비니즘(Neocalvinism) 진통에 바탕을 둔 다윈주의 이론을 옹호하는 참석자들의 논쟁이 있었다. 정치적인 견해가 양극화되고 정치적인 언어가 더욱 거칠어져가는 현실에서 “원칙은 굳게 지키되 정책을 있어서는 유연할 것”을 주장한 피버 교수의 기조 강연과, “은혜(grace), 겸손 (humility), 이성(reason)에 바탕을 둔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한 블레이크 교수의 주장이 참으로 중요하며 먼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모든 내용은 “더욱 세속화되고 다원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비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공공선을 위해 일할 것인가”라는 이 한 문장으로

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종교의 다원화와 정치화 현상은, 국내 및 국제 정치적으로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장 시급한 정치 문제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 블레이크 교수의 기조 강연의 주제였던 “배타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다원주의에 합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시의적절하고도 절실했다고 생각된다. 정치의 세속화 (정치영역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배제시키는 것)와 정치적 배타주의 (한 가지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정치를 개인의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라는 두 가지 해결책을 거부하면서, 블레이크 교수는 미국 역사 초기 종교자유 원칙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로저 윌리엄스 (Roger Williams)의 예를 들어 종교적 배타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에도 드러났듯이, 그것이 구체적인 정치 문제에 있어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큰 그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결혼 문제의 경우, 과연 어디까지가 타협 불가능한 “종교적”인 영역이며 어디부터가 타협 가능한 “정치적”인 영역인지에 대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차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정치적 임무이다”라는 제레미 레파 (Anabaptist) 계열 신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주장은—비록 세상과의 분리라는 그들의 해결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정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 CPS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CPS의 홈페이지 <http://www.christiansinpoliticalscience.com> 를 참고.